

에이블 아트, 장애와 예술의 만남

장애인 예술의 현황과 사회적 의미

주윤정 사회학자

1. 장애인 예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가 중 장애인[■]은 무척 많다. 호메로스, 존 밀튼, 베토벤, 반 고흐 등등 그들에게 장애로 인한 고통이 예술의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고, 더욱이 일견 쓸모없어 보이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의미 부여를 위해 이들의 장애와 이를 극복해낸 예술활동은 더욱 극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 고흐, 베토벤 등 장애로 고통받은 예술가들은 위대한 인간정신을 꽃피운 근대의 신화가 되었다.

이렇듯 장애인이 예술가로 활동하거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장애인의 예술’이란 관점에서 이해되기보다는 ‘예술활동을 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 장애인 예술가들을 특정한 사회적 범주로 바라보는 시선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활동이 구획되기 시작했다.

1) 아웃사이더 아트

장애인의 예술활동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부터였다. 처음에는 정신장애 인들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림에 드러나는 표현들이 광기의 증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의 예술활동은 광기 증상의 진단과 치료라는 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특히 광인들의 정신세계가 근대 이성세계의 타자로 인식되며,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들의 예술활동에서 예술적 가치를 찾고 새

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은 장 뒤뷔페라는 프랑스 아티스트에 의해서였다. 뒤뷔페에 의해 아웃사이더 아트, 아르 브뤼, 어사일럼 아트 등이 장르화되어 1949년 미술계에 소개되었다. 정신병환자, 감옥 수형인, 노인, 호스피스 환자 등으로 아웃사이더 개념은 점차 확장되어갔는데,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미학적인 특징은 ‘순수성, 자발성, 진정성, 성실성’ 등이었다. 한편 아웃사이더라는 개념은 일종의 내부의 장, 인사이더를 의식하며 그에 대한 비판으로 형성된 대립적인 개념이다. 아방가르드 아티스트들에게는 아웃사이더 아트가 근대사회에 대한 비판, 무언가 매개되지 않은 자생적인 상상력의 표현으로 여겨져, 박물관, 갤러리, 살롱의 공식적 미술과는 달리 진정성을 가진 예술로 읽혀졌다.

그렇지만 자신이 직접 표현의 주체가 되어 발언을 하는 페미니즘 아트와 달리 아웃사이더 아트는 미술가 등에 의해 재발견되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예술가의 자의식에 의해 규정되고 지향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들에게 의해 발견되고 새로이 예술 장르로 인식된 것이다.

2) 예술치료 수단으로서의 장애인 예술

장애인의 예술활동은 많은 부분이 예술치료라는 제도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술치료는 심리 치료의 한 방법으로, 미국에서 임상에 도입되어 환자들의 심리상태를 치료해왔다. 최근 한국에도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이 많이 생겨났으며, 예술치료 전문가들이 등장해 장애인, 수형인 등의 소수자 혹은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예술치료를 활발히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예술치료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환자들을 교정시키는 노력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의 독창성이 사라지게 한다는 점과 예술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을 어떤 규격화된 삶에 적응해가게 하는 것이란 점이다. 예술치료의 관점에서는 문제를 개인의 심리적인 것으로 보고 정서상태의 전환을 강조한다. 즉, 진단과 치료라는 의료적 용어를 사용하여 기존의 장애인을 지배하는 치료/재활 패러다임에 귀속시키는 측면이 있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에이블 아트 운동 등 장애인의 예술운동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예술활동이 갖고 있는 치유적인 측면은 인정하고 중시하지만, 예술활동이 단순히 치료의 활동으로 환원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해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예술활동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비정상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그들의 비정상을 치료해야 한다는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문화론적 관점/목적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예술

‘인간극장’류의 장애인의 인간승리를 강조하는 관점이 한편에서 강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장애인 스스로가 발언주체가 되어 장애를 중심에 두고 발언공간을 만들어내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운동 및 소수자 운동의 맥락에서 고려해보아야 한다. 우선 장애인 등 소수자의 문제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나 발언만이 아니라, 다수집단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집단의 문제라는 인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있는 장애인이나 소수자가 사회의 기준과 정상성에 맞

* 이 글은 <에이블 아트: 차이와 소통의 예술>(2007, 한국사각장애인예술협회, 사회평론) 중 주윤정의 글을 토대로 재작성한 것이다.

■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착된 지는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폐질, 불구, 병신 등으로 불리었다. 신체적 손상을 입은 이들이, 이들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장애라 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장애인(Barnes, 2003)이라는 시각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신체적 손상 그 자체에 두느냐, 혹은 그로 인한 사회적 장벽과 차별에 두느냐에 따라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추어 표준화 혹은 규범화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회를 장애인 혹은 소수자의 관점에서 재평가, 재인식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발생했다.

이렇게 장애를 문화론적 관점, 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장애가 일종의 미학적, 정치적, 문화적 관념임을 전제로 하며, 이것이 정체성의 문제이자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둘러싼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장애라는 관점을 통해 문화를 다시 재구성하고 사회 속에서 장애의 역할을 고려하는데, 이것은 넓게는 타인에 대한 의존,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홀로 절대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은 가능한가? 인간은 상호의존적인 존재가 아닌가? 의존적인 존재가 사회적인 존중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비정상성과 정상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4) 장애인 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예술활동

한편 장애인 운동 내부에서는 예술활동이 장애인의 집합적 정체성과 새로운 대안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의 시민권 중심의 장애인운동과는 달리, 예술활동을 통해 좀더 다수의 정체성과 목소리내기가 가능해지며, 개인이 모두 새롭고 독립적 사회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적 이미지인 ‘자선의 대상, 비극적 장애인의 이미지 혹은 인간 승리의 신화’를 벗겨내고 인간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데 문

화예술이 도움이 된다고 영국의 장애인운동가 핀켈슈타인(Finkelstein, 1993)은 주장한다. 나아가 예술이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는 장애의 삶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장애인의 예술활동이 어떤 사회적 제도와 틀 속에 위치지워지는지에 따라 그것이 갖는 사회적 파급력 역시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외면적으로는 미술활동, 예술활동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전문가에 의해, 어떤 사회적 공간에서 행해지고 위치되는가는 큰 차이를 야기한다. 발언을 하는 것, 소통을 하는 데에는 단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내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소통되어지는 장, 매체, 위치에 따라 많은 부분 규정된다. 즉 장애인이 미술을 한다는 동일한 행위가 사회복지 체계 속에서 예술치료 속에 자리 잡느냐, 아니면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예술운동 속에 자리잡느냐에 따라 그것이 갖는 성격과 영향력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더욱이 어떤 제도, 어떤 사회적 실천, 어떤 사회적 소통 공간 속에 존재하는가는 예산 집행의 문제이자, 전문영역의 문제이며, 구체적인 실천의 존재근거를 결정짓는 성격에 대한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하는지의 문제이다. 다음에서 설명할 에이블 아트 운동과 같이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공공미술의 장과 사회 속에서 소개하고 소통시키려는 노력은 장애인을 일반인과 동등한 활동을 하는 이들로 자리매김하며, 사회가 장애인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 나간다.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활동과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2. 에이블 아트란

장애와 예술의 만남을 일컫는 용어는 나라별로 차이를 보인다. ‘에이블 아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에이블 아트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장애예술 운동단체인 ‘민들레의 집’(popo.or.jp)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하는 전람회를 개최하면서 전람회의 타이틀을 〈에이블 아트〉라 정했고, 그 이후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NGO를 조직하며 ‘에이블 아트’라 명명했다. ‘에이블 아트’는 한국의 장애예술운동과도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재단과 공동기획으로 에이블 아트 포럼을 두 차례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개최한 바 있다.

반면 같은 장애예술활동이더라 해도, 미국에서는 ‘베리스페셜아트’(very special ar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장애예술’(disability ar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용어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베리스페셜아트의 경우 장애예술을 특수교육의 한 활동으로 범주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VSA’라는 약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장애예술이라는 말을 통해 장애예술가의 정체성을 보다 강조하며, 활발한 장애인운동과 연계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에서 용어의 사용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앞으로 보다 열린 가능성을

■ 이런 관점은 장애인운동계에서 장애(disability)를 다른 능력을 가진 것(differently abled)이라 명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갖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언어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단, 에이블 아트라는 용어의 사용이 장애와 예술의 만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자극제로 기능한다면 유의미할 것이다.

3. 장애와 예술의 만남이 갖는 의미

예술은 항상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감수성, 새로운 경험 등이 예술적 표현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를 경험하고 알고 살아가는 다른 방식을 예술이 제공해주는 것이라면, 장애를 매개로 한 예술은 소위 정상적인 몸과는 다른 몸의 경험을 세상과 공유하게 하기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그래서 장애가 새로운 예술의 감수성의 원천이 되기도 했으며, 한편 신체의 문제가 예술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며 장애, 혹은 절단되거나 결여된 신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것은 ‘정상성’의 관념이 강고히 지배해온 근대세계에 대한 역반응이라 볼 수 있다. 근대세계를 공고하게 유지해온 정상성이라는 관념이 도전을 받으며, 정상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인식되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셈이다. 타자에 대한 관심, 근대 이전의 세계에 대한 관심, 근대 외부에 대한 관심 등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대를 넘어서는 혹은 상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 장애는 정상적인 몸과 정상성의 개념을 불안정하게 한다.

거꾸로 장애는 왜 예술과의 만남을 기대하는가? 이동권, 교육권, 생존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장애와 예술의 만남은 왜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물론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장애인의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접근권 문제 등이 대두되며 예술 창작자로서의 장애인의 역할이 조명 받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장애가 예술은 만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는 장애의 상징정치의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수준에서의 논의가 가능할 듯하다. 우선 장애가 근대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었는가, 이미지화되었는가, 비정상성의 영역으로 배제 그리고 추방되었는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성과 정상성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은 다른 장애의 이미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번째 수준에서 비로소 본격적인 장애와 예술의 만남이 가능해진다. 장애를 비정상적이라고 보지 않고 ‘다름’으로 구축하며, 사람들이 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예술표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에 대한 관습화된 기존의 이미지와 표상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주체적인 예술활동과 이미지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배적 이미지에 대해 도전적인 예술창작이 요구되며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이자 문필가인 올리버 섉스는 장애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있다. 그는 자신이 정신의학자 역할을 하며 만난 다양한 환자들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장애가 단순히 신체적 손상이나 결여가 아니라, 다른 지각세계, 다른 생활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능성의 영역임을 주장

한다. 그에 따르면 ‘장애는 일종의 감수성’이다. 예를 들어, 색채감각을 상실해 세상을 무채색으로만 보게된 어떤 이는 자신이 보고 있는 세계를 화폭에 옮겨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그려냈다. 이것은 단순히 컬러를 흑백사진으로 옮겨놓은 차원이 아니었다. 올리버 섉스는 인간이 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감각기능이 발달해 자신의 신체 경험을 완성시킨다고 말하며, 이를 치료하거나 교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경이롭게 바라본다. 그리고 각 환자가 갖고 있는 세계에 들어가 그것을 이해하고 소위 일반인 세계와의 소통 가능성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시각장애인이자 종교교육자인 존 헐은 비가 오면 세계가 자신에게 드러낸다고 말한다. 빗소리는 거리의 공간과 사물의 배치를 알려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빗소리가 사물과 부딪히는 소리를 통해 세계에 대해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즉 장애인들은 결여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경험하는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올리버 섉스와 존 헐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감각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보는 방식, 경험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앎은 절대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신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특정한 몸과 특정한 공간과 세계의 대화를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방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시각장애인과 정상인의 세계는 총체적으로 다르다며, 시각장애인은 촉각

에 의해 가지, 잎, 팔과 손가락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세계와 소통해나가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다.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세계는 주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이 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프로젝트이다.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역할을 찾기 어려운 것은 일종의 남성적 프로젝트에 의해 공적 영역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거나 혹은 구성과정에서 배제된 집단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위치를 찾을 수 없다. 세계에서 배제되고 억압되는 것은 일종의 집을 잃음이다. 비장애인들에 의해 구성된 세계 속에서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찾거나 집을 짓기가 어렵다. 장애인 자신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소통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특정한 신체적 조건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방식과 잠재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예술은 새로운 기술과 표현 방식의 발전에서도 가능하지만, 새로운 예술적 주체의 등장,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서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할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태껏 사회질서와 공간 속에서 은폐되어 있던 장애인 등 타자의 목소리는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상상력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예술은 장애가 세계와 맺고 있는 다른 관계를 표상하고 드러내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4. 영국과 일본의 장애예술운동

1) 영국의 장애예술운동

장애예술 활동들은 전세계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보겠다. 영국의 경우에는 장애인 운동의 활성화로 인해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예술 창작 활동이 증가했으며,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또한 의료 모델과 재활 모델을 거부하며, 사회적 모델의 영역 속에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예술의 주제 역시 주로 ‘장애의 경험’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이런 경향은 영국의 장애예술 운동이 장애인 운동의 성장과 같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 영국 장애예술연합포럼(National Disability Arts Forum, www.ndaf.org)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영국의 장애예술은 장애인 운동의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운동과 장애인 예술운동은 모두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 둘 다 장애인이 중심적인 풀뿌리 조직에 근거해 시작되었고 정치적 행동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장애인 예술운동은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에서 장애예술 운동이 시작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장애예술에 대한 잡지들의 출간이었다. <The Disability>(1980), <From the Cold>(1981), <DAIL(Disability Arts In London)>(1986), <DAO(Disability Arts Online)>, <ETC>, <DAM(Disability Art Magazine)> 등이 있다. 이런 잡지들은 장애예술에 대한 기사, 리뷰, 평

론 등을 실어 다양한 담론을 생성했고, 장애인 예술가의 경험을 공유하며, 장애예술 활동에 필수적인 정보(예술 관련 기금, 컨설팅) 등을 제공했다.

1986년에는 ‘런던장애예술포럼’이 창설되어, 상이한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처음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들은 장애예술과 관련한 학회, 전시, 워크숍,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수많은 회화, 조각, 소설, 시, 연극,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이 등장했다. 런던장애예술포럼의 모델을 따라 전국 각지에서 장애예술포럼이 조직되었으며, 이들을 통합하는 조직인 ‘영국장애예술포럼’이 1991년 창설되었다.

이 밖에도 영국에는 다양한 장애 관련 예술단체들이 활동 중이다. 3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셰이프’(Shape)는 장애인의 예술접근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특히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 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각장애인의 드라마 워크숍, 청각장애인 연극 주간 등을 개최했고, 장애인 가운데 예술 종사자를 육성하기 위한 포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장애인들이 예술경영 등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에드워드 리어 재단’은 장애예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영국에서 장애예술의 발달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장애예술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이 재단이 2003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는 50개가 넘는 조직이 장애예술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의 주체적 표현을 강조하는 영국의 장

애예술에서는, 정책적으로도 진일보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사회통합을 성취하기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 영국 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정책의 분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장애가 가장 우선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에서 이런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우선 1970년대 시작된 장애인권운동의 결과 사회적으로나 장애인 스스로나 권리 의식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95년 제정된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갤러리, 공연장, 극장 등 모든 문화 공간들이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장애인이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애예술인이 사회의 문화발달에 기여하며 창조적인 문화산업에도 기여한다고 정책 시행의 목적을 밝힘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적극적인 주체성을 인정하고 강조하고 있다.

2) 일본의 장애예술운동

영국의 장애예술운동이 장애인의 정체성 문제와 정치적 발언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공동체 운동적인 성격이 보다 강한 편이다. 앞서 언급했듯, 일본에서는 ‘에이블 아트’라는 운동을 조직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무능력(disable)이라 불리는 것에 반해, 가능성(able)의 예술을 주창하는 것이다. 에이블 아트는 사회적으로 가치를 낮게 평가받은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능력을 높이고, 사회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

■ 일본 에이블 아트 운동의 역사와 전개에 대해서는 <에이블 아트:차이와 소통의 예술>(2007,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사회평론) 참조.

으로 한다.

처음 일본의 장애예술활동은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의 미술교육에서 출발했다. 1964년 교토시립예술대학의 규이치 니시가키 교수가 미즈노키 학교에서 정신장애인을 가르치며 ‘지식에 물 들지 않은 진리를 표현하는 장애인 예술’에 주목했고, 1970년대 니시무라 요헤이 선생은 치바현립 명학교에서 도예를 가르치며 ‘촉각을 통한 예술’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제도화된 예술장르에 대해 한계와 벽을 느낀 예술가들이 장애인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다.

한편 1970년 요코하마에서 두 장애아를 둔 어머니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장애인들의 목소리와 상황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아이를 살해한 잘못이 어머니 개인에게 있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방조한 사회에 있다며, 어머니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면운동이 촉발되기도 했다. 당시 신문기자로 재직하고 있던 하리마 야스오(播磨靖夫)는 장애인의 생활을 취재하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 각성하게 되었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리마 야스오와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민들레의 집’ 설립 운동을 시작했다. 장애인들이 모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특히 부모의 사후에도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드는 것이 ‘민들레의 집’의 주요 목적이었다. 민들레의 집 운동은 ‘무능력하다는 것이 오히려 무기가 되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주었다. 사회적으로 규정되어온 기

존의 장애 관념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하기 시작한 셈이다. 1970년대 민들레의 집에서 내세운 중요한 모토는 ‘상상력은 장애를 넘어선다’ 등이었다. 수차례의 모금 운동과 여러 사회 활동의 결과 1976년에 재단 법인이 설립되고, 1989년에는 민들레의 집이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었다.

1980년대는 전국 각지의 복지시설에 개인들의 예술활동이 활발해졌다. 시각장애인 아들을 둔 무라야마 부부가 아들을 위해 시각장애인 전용 갤러리인 ‘툼갤러리’를 설립하기도 했다. 장애인 예술활동의 기반이 만들어지자, 점차 이를 사회적인 운동으로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장애인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단순한 능력확인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예술활동이 ‘병든’ 사회에 영감과 치유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적극적인 인식 변화를 꾀한 것이다. 이런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개별적으로 이어져오던 활동과 운동들이 1990년대부터는 조직화되어 시민문화예술 운동으로 변화했다. 1994년 6월 ‘에이블 아트 재팬’이라는 NPO가 미즈노키, 니시무라, 민들레의 집 등 관련 단체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목적과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표현활동을 통해 살아가는 존엄을 획득하는 동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생활하고 감성 넘치는 표현활동을 통해 사회에 새로운 예술관과 가치관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공모전, 전람회, 개인전, 포럼, 워크숍, 조사연구 사업, 조성 사업, 무대 관련 사업, 출판사업, 아틀리에 보레보레 활동, 영화 배급, 정보 교환 등의 활동을 한다.”

철학적 고민과 다양한 실험의 결과 에이블 아트 운동의 핵심이 된 ‘민들레의 집’이 완성되고, ‘에이블아트 재팬’이라는 NPO가 형성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운동을 전개해나갔다. 특히, 기존의 복지중심적인 장애인 시설과 제도를 벗어나서 장애인의 예술이 예술적 가치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공간과 제도를 만들거나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에이블 아트를 소개하는 포럼을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을 돌며 74회 개최해, 에이블 아트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했고, 전국 각 지역으로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아트마을>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최했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예술작품이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의 하나로, <에이블 아트 컴퍼니>를 설립해서 장애인 예술작품을 판매하고 있다.

5. 한국의 장애예술운동

현재 한국에서는 장애인 문화운동을 위한 여러 단체와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현영역, 주제, 방법에서 상당히 다채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자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활동이 지속성을 갖는 것이다.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유대감 형성을 통해 예술활동에 익숙해지고 자신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이 처한 현실적 상황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장애인 개개인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행하기도 어렵고, 단체의 경우에도 문화예술 활

동에 대한 별도의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2007년 5월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문화복지정책의 현실과 대안>이란 제목의 포럼 당시, 당사자 단체를 제외한 장애인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한국 현실에서는 이동권, 교육권, 생존권 등의 문제가 보다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에 대한 장애계의 참여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나가는 이들과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2003년 발족한 ‘장애여성문화 공감’은 연극 및 미술작품 활동을 통해 장애여성의 현실을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특히 연극과 미술전시라는 틀을 빌려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다. ‘춤추는 허리’라는 연극팀이 대표적이다. 장애여성 문화 공감의 대표인 박김영희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운동하면 현장 운동, 집회라든가 투쟁적인 모습이 대부분인데 장애여성들은 뭔가 문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연극이라든가, 퍼포먼스, 노래, 무엇이든지 문화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공감’에서는 연극을 선택한 거죠.”[■]라고 문화예술활동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장애가 있는 몸, 다른 몸에 대해 거부감이 있잖아요. 무대 위라 할지라도 기어다니고 구르고 있는 몸, 흔들거리는 몸, 비틀거리는 몸에 대해 불편해 하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안 보이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장애여성의 차별의식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단체로 또 다른 단체로 ‘끼판’이 있다. 이곳은 장애

■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7/20061104/20061104133300.html>

여성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로 비장애 중심의 문화에서 장애인의 문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단체이다. 2000년 창단 이래 <몸짓 하나 나는 나>, <돌몸짓>, <나의 이야기>라는 연극을 공연했으며, 장애인의 차이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댄스, 혹은 휠체어 댄스라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소개하고, 최근에는 자기표현 예술워크숍으로 ‘크리에이티브 댄스’ 워크숍, 장애여성의 영화워크숍 등으로 활동영역을 펼쳐가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댄스의 핵심적인 개념은 무용은 어떤 규범화된 형식에 자신의 몸을 맞추어가는 것이지만, 크리에이티브 댄스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몸짓에 기초해 무용을 풀어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비장애인 전문 예술가들은 장애인들에게 일반인의 몸짓에 기초한 규격화된 몸짓을 강요하는데, 신체조건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통이 잘 안 될 경우, 그런 차이는 차이 자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무능력으로 인식되며 서로에게 절망감만을 안긴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댄스의 경우 장애인 몸 자체에 기초해 몸짓을 풀어낸다.

한편에서는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 등 표현방법의 실험을 통해 장애인 예술영역을 확장하는 시도들도 있다. ‘미디어트’, ‘장애우권익보호 연구소’ 등이 주축이 되어 장애인에게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를 통한 퍼블릭 액세스 운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들의 표현할 언어를 습득하고 사회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 다양한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을 습득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영상미디어 센터 미디어엑트는 장애인의 미디어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유형별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 미디어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미디어 교육 교사, 기획운영자, 특수교육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미디어 교육 가이드북 제작팀을 마련해 가이드북을 제작 중이다.

정부의 문화정책에서도 최근에는 소수자,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나눔 사업,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장애인 사업 지원, 경기문화재단의 장애우 문화나눔 사업 등을 토대로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문화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정책은 장애인 향유정책과 장애인 창작자 지원정책 등 크게는 두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방향이 완전히 분리되는 문제는 아니다. 현재 향유 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 접근권 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국공립시설에서 다각도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박물관 등에서도 장애인 관련한 제도와 서비스 등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국립박물관에서 수화통역자 공고를 내고, 장애인 영화제 등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교육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시각너머의 미술’이라는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시각

장애인들의 예술접근권 활성화를 위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척되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은 소외계층에게도 문화적 서비스를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예술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장애인도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차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과 창작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사회의 창의성 향상과 다양성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장애예술의 활성화가 사회의 다양성 증진과 창의적 산업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후자의 적극적인 관점을 채택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예술문화 영역이 활성화될 것이다.

장애예술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전문적인 장애예술을 위한 아트센터의 설립, 독자적인 장애인 문화정책, 문화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 인력의 육성, 장애인 내부의 운동의 활성화 등이 그 한 가지일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사회와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예술문화활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술표현을 펼쳐가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예술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안정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장애인 예술가들이 표현한 예술작품이 사회적으로 소통되고, 그 결과 다시 장애인에게 반응이 전달되는 소통의 경험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지속성이 보장될 것이다.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일종의 생활 영역의 일부이자 자연스런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인들이 만나 진정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글쓴이 **주윤택**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특히 '장애와 문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참고문헌

1차 문헌

『달그락, 다른 목소리로』, (2004), 소수자문화교육 프로젝트 기획단.
『한·일 에이블 아트 포럼 서울 2004』, (2004),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현황과 문화육구실태』, (2005),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세미나 자료.
『장애문화예술인 문화복지정책의 현실과 대안』, (2006), 국회의원 손봉숙.
『장애인 문화복지정책의 현실과 대안』, (2007), 손봉숙 의원실 정책토론회.
『できる!アート: 福祉施設における<アート化の軌跡』, (2001), 財団法人たんぼぼの家.
『百聞は一見をしのぐ!?: 視覚に障害のある人の言葉による美術ハンドブック』, (2005), Able Art Books.
『Able Art:魂の藝術家たちの現在』, (1999), 財団法人たんぼぼの家.
『Touch the Spirit: Able Art 国際フォーラム』, (2001), Able Art Japan.
『このアートで元一になる: エイブル・アート '99』, (1999).
『こんなアートスペースがあったらいいな-障害のある人のアート・まち』, (2000), Able Art.
播磨靖夫, (1999),『エイブルアートとなにか』,『Able Art: 魂の藝術家たちの現在』, 財団法人たんぼぼの家.
西村陽平, (1984),『見たことないもの作ろう』, 偕成社.
Celebrating Disability Arts, (2003), Arts Council England.

2차 문헌

김도현, (2007),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김도현, (2007), 『차별에 저항하라』, 박종철 출판사.
김창엽 외, (2002),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삼인.
유영기, (2004), 『제1장 소수자, 그 무적(無籍)의 논리』, 최협 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윤수중, (2005), 『우리 시대 소수자운동의 특성과 함의』, 윤수중 외, 『우리 시대의 소수자 운동』, 이학사.
메를로 폰티 (2002), 류익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역셀 & 레벤트, (2007), 김형주 & 우정민 옮김, 『시각너머의 미술』, 미진사.
정창권, (2005),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역사 속 장애인 이야기』, 문학동네.
힐, 존, (2001), 강순원 옮김, 『손끝으로 느끼는 세상』, 우리교육.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편 (2007) 『에이블 아트: 차이와 소통의 예술』, 사회평론. 倉本智明, (1998),『障害者文化と障害者身体:盲文化を中心に』,『解放社会学研究』12号: pp.31-42, 日本解放社会学会.
谷合 侑, (1996), 『盲人の歴史』, 明石書店.

Barnes, Colin; Mercer, Geof, (2003), Disability, London: Polity.
Barnes, Colin, (2003), "Effecting Change: Disability, Culture and Art?" presented at Finding the Spotlight Conference.

Bowler, Anne E., (1997), 'Asylum Art: The Social Construction of an Aesthetic Category', Zolberg, Vera L.; Cherbo, Joni M. ed., Outsider Art - Contesting Boundaries in Contemporary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sling, Dennis, (1994), 'Art for Whose Sake?', Disability & Society, Vol. 9, No. 3, pp.383-394.

Corker, Mairian; Shakespeare, Tom, (2002), Disability/Postmodernity, NewYork: Continuum.

Crutchfield Susan & Epstein, Marcy, (2000), 'Introduction', Point of Contact - Disability, Art, and Culture,, The University of Michgan.

Hetherington, Kevin, (2002), 'The Unightly - Touching the Parthenon Frieze', Theory, Culture & Society, Vol. 19(5/6), pp.187-205.

Mitchell, David T.: Snyder, Sharon L., (1997), The Body and Physical Difference - Discourses of Disability, The University of Michgan Press.

Morrison, Elspeth; Finkelstein, Vic, (1993), 'Broken arts and cultural repair: the role of culture in the empowerment of disabled people', Swain, John; Finkelstein, Vic; Sally, French; Oliver, Mike ed., Disabling Barriers - Enabling Environments, London: SAGE Publications.

Oliver, Michael(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 From Theory to Practice, NewYork: St. Martin's Press.

Rhodes, Colin, (2000), Outsider Art: Spontaneous Alternatives, London: Thames & Hudson.

Silvers, Anita, (2002), "The Crooked Timber of Humanity: Disability, Ideology and the Aesthetic," Disability/Postmodernity, NewYork: continuum.

Sutherland, Allan, (1997), "Disability Arts, Disability Politics", Framed: Interrogating Disability in the Media,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Pointon, A. with Davies, C. eds., (1997), Framed: Interrogating Disability in the Media,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